

더 단단해진 'K5' 패밀리카로 손색 없다

기아 3세대 K5 페이스리프트 버전 '더 뉴 K5' 시승기

강한 인장·첨단 기능 무장...확 바뀐 실내 편안함 더해 승차감·정숙성·높은 연비...운전석에서 내리기 아쉬워

"더 단단해지고 스포티해졌다." 기아의 '더 뉴 K5'를 처음 마주한 순간 든 생각이다.

매번 혁신을 거듭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상품성으로 중형 세단 시장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는 K5는 이번에도 소비자를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지난 23일 시승행사에서 만난 '더 뉴 K5'는 2019년 출시된 3세대 K5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더욱 남성적이고 단단한 디자인으로 변모했다.

K5는 3세대 출시 후 사실상 시장에서 대항마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올 초 신형 쏘나타의 출시로 다시 한번 변화를 줬다.

3세대 K5는 '예쁜' 디자인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 차량에서 돋보이는 것 역시 디자인이었다.

차량의 인상을 결정하는 전조등과 주간주행등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더욱 강인한 인상을 줬다.

특히 앞선 3세대 주간주행등은 하나의 선이 휘어진 'ㄱ' 형태를 띠었다면, 변경된 주간주행등은 각각 전면부와 펜더, 범퍼 3갈래로 쭉쭉 뻗어나가 남성미를 더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인간을 벌하며 지상을 향해 내리꽂는 번개를 연상시켰다.

전면부 공기흡입구와 에어덕트의 넓이도 늘어 앞에서 차량을 바라볼 때 더욱 크고 와이드한 느낌을 줬다.

후면부의 큰 변화라고 하면, 역시나 테일램프다. 기아는 입체감과 강렬한 존재감을 주기 위해 '스타맵라이팅'에 컴비네이션 램프를 적용했다. 마치 으르렁대는 재규어의 어금니 같은 형상으로 강인함을 줬다. 반면 차량의 옆 모습은 마치 쿠퍼형 차량으로 착각할 만큼 B필러에서 후면부로 완만하게 매끈한 모습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연출했다.

이날 시승회에서는 내·외장 디자인에 블랙 색상을 더해 남성미를 더한 블랙 핏(Black Fit) 모델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젠틀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블랙핏 모델은 ▲블랙 스웨이드헤드 라이닝 인테리어 ▲리아더크스키드 플레이트·머플러 ▲전용 18인치(19인치)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 블랙 테마의 전용 디자인으로 남성미를 강조한 디자인이었다.

K5의 실내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를 넘어 신형 모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바뀌었다.

무엇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가 적용된 '파노라믹커브드 디스플레이'였다. 계기판 역할을 하는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공조시스템, 내비게이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12.3인치 클러스터를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 편의성을 올렸다.

특히 내비게이션과 공조 전환 버튼을 하나의 버튼을 눌러 조작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버튼을 줄여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을 줬다. 조작이 편해지면서 이곳저곳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졌지만, 버튼 등 마감재로 사용된 블랙 하이그로슈에 지문이 잘 남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바뀐 K5에는 다양한 첨단 장비도 장착했다. 차량의 주요 전자 제어와 연계된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본 적용했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영상 및 고음질 음원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를 적용했다.

이밖에 크렐(KRELL)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12 스피커) 기반 5.1 채널 사운드로 더욱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한다.

또 2세대 디지털키와 2세대 빌트인 캠을 장착했고, 자동차 키 없이도 시동을 걸 수 있는 지문 인증 시스템을 적용했고 전동식 세이프티 파워트링클을 장착했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보니 중형차라는 체급이 의심될 정도로 무릎 공간은 넓고, 시트는 편안했다. 외관에서 주는 강인함 느낌과 달리 샌드베이지 색상이 적용된 실내 패밀리카로 손색없을 정도의 우수한 공간감과 다양한 편의장비로 안락함을 제공했다.

이날 시승한 차량은 주력 모델인 2.0ℓ 자연흡기 엔진에 최고급 트림인 시그니처에 컴포트 옵션, 선



기아가 최근 출시한 더 뉴 K5. 더욱 단단해진 디자인과 첨단 장비가 장착돼 상품성을 강화했다.

(기아 제공)



기아 '더 뉴 K5' 내부.

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사운드가 적용된 모델이었다.

시승 코스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정문에서 출발해 장성 백양사로 향하는 편도 40km 거리. 패밀리카로 나무랄 데 없는 내·외관을 갖췄지만, 달려보니 역시 기자가 알던 K5가 맞았다. 비교적 단단한 서스펜션 세팅으로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을 줬고 무리

없이 100km 이상 쉽게 치고 나갔다.

민첩한 주행 성능과 더불어 노면 진동과 충격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모습이었다.

기아는 차체와 앞유리가 만나는 부분의 소재를 보강하고, 이중접합차음 유리를 기존 앞유리와 앞·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해 정숙성을 높였는데, 직접 고속운전을 해보니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주행 중 다양한 첨단 기능도 작동시켜 봤는데, 차로 유지보조와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등 모든 기능이 운전 편의성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줬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할 때, 후진하는 차량 뒤에 물체가 있을 경우 울려대는 핸들 진동도 불편함 없이 부드러운 강도로 운전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알맞았다. 헤드업디스플레이 역시 한 낮에도 시인성이 뛰어났다. 편도 40km를 달렸지만, 운전석에서 내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만족감이 큰 시승이었다.

더 뉴 K5의 파워트레인인 2.0 가솔린, 1.6 가솔린 터보,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2.0 LPI 4기통다. 트림별 가격은 ▲2.0 가솔린 프레스티지 2784만원, 노블레스 3135만원, 시그니처 3447만원 ▲1.6 가솔린 터보프레스티지 2868만원, 노블레스 3259만원, 시그니처 3526만원 ▲2.0 가솔린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3326만원, 노블레스 3662만원, 시그니처 3954만원 ▲2.0 LPI프레스티지 2853만원, 노블레스 3214만원, 시그니처 3462만원이다.

익스테리어 색상은 '올프 그레이'와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 2종의 신규 색상을 포함한 7종의 색상과, 신규 색상 '샌드', '마션 브라운'과 블랙 등 3종의 내장 색상을 운영한다.

기아는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혜택이 적용된 가격을 공개하고 출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올해의 리더'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선정

정의선(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Industry Leader of the Year)'로 선정됐다.

27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 뉴스(Automotive News)는 '2023 오토모티브 뉴스 올스타' 38인을 발표하고, 정의선 회장을 그 중 최고 영예인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로 선정했다.

오토모티브 뉴스가 선정하는 '자동차 산업 올해의 리더'에는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CEO와 메리 바라 GM 회장 겸 CEO, 빌 포드 포드 회장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오토모티브 뉴스는 "정의선 회장은 다양한 미래 기술을 선도하며 모빌리티의 새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정의선 회장의 차별화된 전동화 전략과 신사업 추진도 선정 이유 중 꼽혔다.

글로벌 톱 3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차그룹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와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 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고 전동화 전환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63조 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추진 중이다. 정의선 회장은 소감을 통해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모든 임직원과 파트너들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와 AI, PBV와 SDV, AAM 등을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인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고객 기대 이상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봉고 LPG 터보 모델 출시

5단 자동 변속기 1.2 t 까지 확대

기아가 봉고 LPG 터보(사진) 모델을 출시했다.

기아는 봉고에 스마트스트림 LPG 2.5 터보 엔진을 탑재해, 디젤 모델 대비 우수한 출력과 경제성을 확보했다. 특히 고객 선호 편의사항을 추가해 상품성을 높였다. 또 기존 봉고 1 t에서만 운영하던 5단 자동 변속기를 1.2 t까지 확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봉고 LPG 터보의 최고출력과 최대토크는 ▲5단 자동 변속기 기준 159마력(PS)·30.0 kgf·m ▲6단 수동 변속기 기준 138마력·26.0 kgf·m 로, 디젤 모델 대비 각각 약 18%, 4% 향상된 출력과 비슷한 수준의 토크를 발휘한다.

봉고 LPG 터보의 복합연비는 1t 초장축 2WD 킷업 기준, 6단 수동 변속기 리터당 7km, 5단 자동 변속기 리터당 6.5km로 디젤 모델 대비 연간 약 80만원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기아는 봉고 LPG 터보는 ▲동승석 에어백 ▲키홀 조명 ▲오토 라이트 컨트롤을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했으며, 최상위 트림에 ▲안드로이드 오토-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모니터 ▲C타입 USB 충전단자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 ▲기아 커넥트 기반 10.25인치 내비게이션 ▲버튼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풀오토 에어컨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으로 구성된 '10.25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모든 트림에서 선택 사양으로 운영해 승용 차량에 준하는 편의사항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기아는 ▲편리한 적재를 돕는 '적재함 평바닥' ▲브라운 인테리어로 실내를 꾸밀 수 있는 '플러스 패키지' 등 선택사항을 봉고 LPG 터보에서도 운영한다.

봉고 LPG 터보의 가격은 ▲1t 1993만원~2275만원 ▲1.2t 2421만원~2524만원이다.

기존 경유차를 폐차하고 봉고 LPG 터보를 구입할 경우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원과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800만원 등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은 나도 카레이서" 지난 26일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아이오닉 5 N 오너스 데이'에 참여한 운전자들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아이오닉 5 N 오너스 데이에 참여한 고객들은 드라이빙 이론과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트랙에서 연출된 상황에 맞춰 아이오닉 5 N의 특화 기능들을 직접·간접적으로 활용해 보며 운전의 재미와 안전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현대차 제공)